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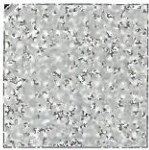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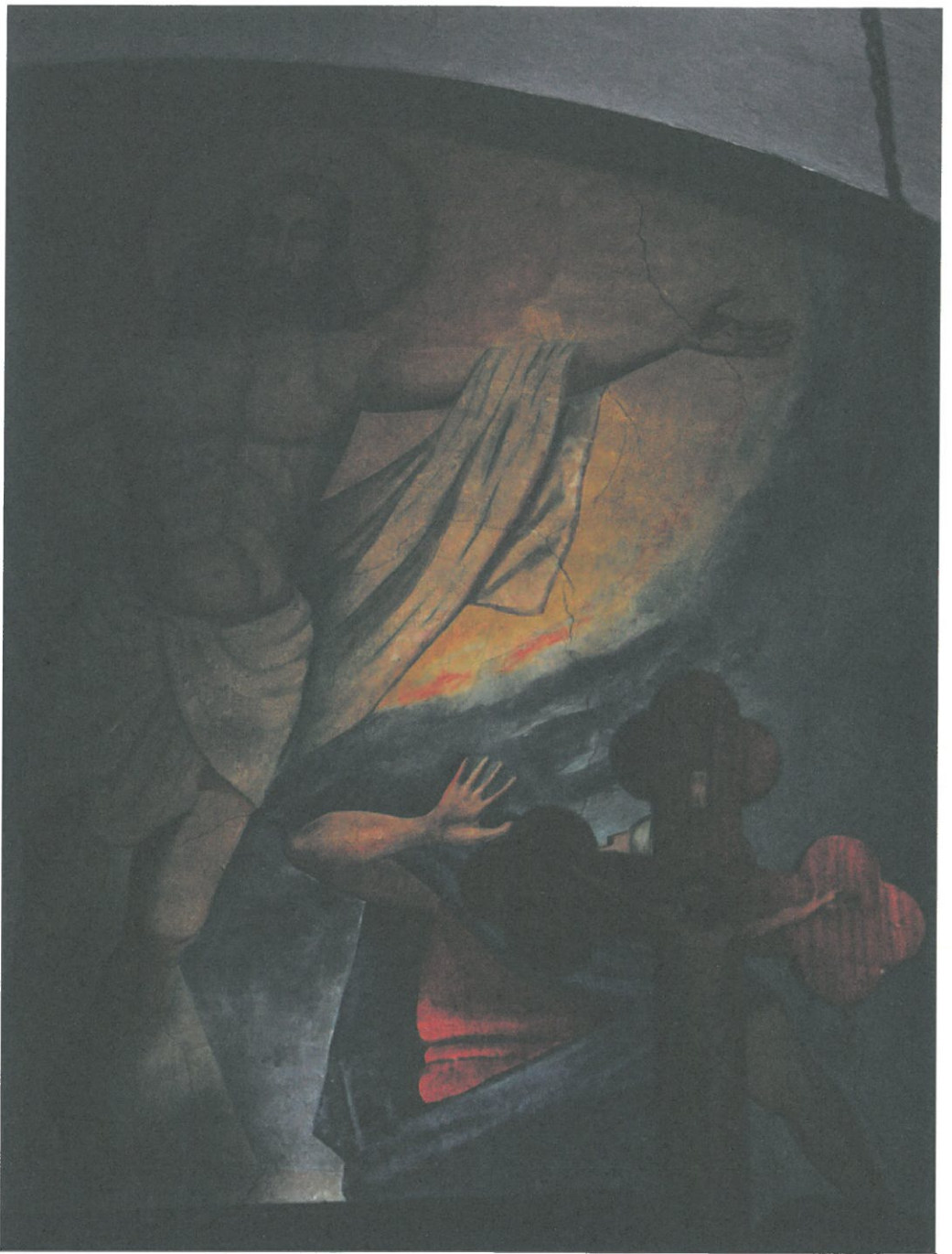
2022년 4월 10일(다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요한 12,12-13; 시편 24(23),9-10

제1독서 | 이사 50,4-7

화답송 | 시편 22(21),8-9,17-18 ㄱ,19-20,23-24(◎ 2ㄱ)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내놓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 루카 22,14-23,56 <또는 23,1-49>

영성체송 | 마태 26,42 참조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바보’ 같은 당신 모습

동유럽 국가 간 전쟁,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이성을 향한 혐오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 사회현상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긴장과 갈등, 역지사지의 부재, 권리 주장과 의무 준수 사이의 불균형에 젖어있음을 말해줍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만 바라보는 것은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지도 성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의 성경 말씀은 어떤 길을 안내합니까?

제1독서(이사 50.4-7)는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이사 50.6)라며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은 모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에 관한 예언입니다.

제2독서(필리 2.6-11)에 따르면,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7-8)라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이를 밟고 올라서도록 강요하는 암묵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이런 모습은 그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에 관한 초대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수난기(루카 22.14-23.56) 장면은 오늘 미사 초반에 들었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루카 19.28-40)과 대조적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찬미하며 당장이라도 왕으로 모실 기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을 비난하며 모른 체할 것입니다. 급기야 주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바보’처럼 외롭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 입성 때 주님을 향해 환호했던 군중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득과 직결될 때는 웃는 얼굴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모른 체하거나 비난하며 ‘마녀사냥’까지 서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 군중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고통과 수난을 겸손과 순종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22년에도 우리의 죄 즉, 이기심, 공감 능력 부족, 무관심의 죄—를 대신하여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온몸을 짓누르는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통과 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바보’ 같은 모습의 주님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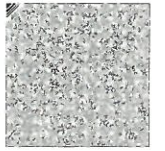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기나니 주여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조용민 요셉 | 구글 코리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존경하는 교수님께 전해 들은 어느 신부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때때로 사람들 때문에 성가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못마땅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과 상황 모두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완더크래프트(WanderCraft) 로봇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소장인 장루이 콘스탄자에게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혼자 걸어본 적이 없이 휠체어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거의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인 2021년 여름 콘스탄자 소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만든 로봇을 착용하고 인생 첫걸음을 혼자 내딛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에 아버지는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았고, 아들은 평소와 다른 높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에서 의학 보조용 로봇으로 분야를 바꾼 콘스탄자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의 존재가 예전에는 나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가진 도구와 재료와 상황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전에 없던 기회’라는 선물을 줍니다.

대구의 광명학교는 시각 장애 학생들이 모여 학업을 이어나가는 공간입니다. 매년 나눠주던 이 학교의 졸업 앨범은 사진으로 정리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졸업 앨범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졸업 앨범을 전에 없던 형태로 제작해 졸업생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바로 3D 프린팅 기술로 졸업생 친구들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부조 형태의

졸업 액자입니다. 대구 경제부시장님과 티타임을 갖게 된 날 이 졸업 앨범을 만든 담당자분들을 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존의 앨범은 우리 시각 장애 학생들이 사용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도 매년 나눠주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3D 프린팅 연구소와 함께 연구하여 학생들의 얼굴을 데이터 처리하여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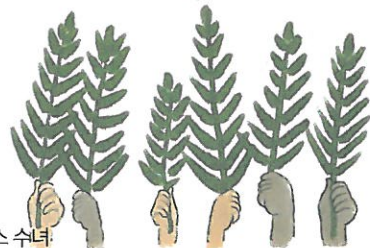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마음과 짐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게 해줍니다. 물질과 기술에 매몰되고, 전 지구적인 인류애가 아닌 자국의 이익만이 최우선시되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전에 없던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전쟁과 폭력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느님, 오늘도 제가 제 삶에 간혀, 상황이 주는 기회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껏 묵상

다독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분
입금님은 복되시어라

주제어 38



류상애 아네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3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 기도와 전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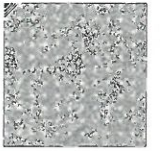
조한규 베네딕도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기도는 하느님 앞에 머물며 그분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바치는 기도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기도, 즉 '전례(典禮)'도 있습니다. '전례'의 라틴어 단어 Liturgia는 '공적 기도', '공동의 예배'를 뜻합니다. 전례는 교회가 정한 예식대로 함께 바치는 기도로 미사, 성사 및 준성사, 성무일도(=시간 전례), 성체조배, 성체강복과 행렬 등입니다. 전례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이기에, 공통의 예식과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로마 가톨릭교회의 미사, 성무일도 등 전례의 중요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미사 중 서거나 앉거나 절하는 것도 전례의 일부입니다. '아멘'(amen)이란 단어 뜻은 '맞습니다', '믿습니다'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과 동의를 표현하는 이 단어는 '서 있다', '똑바로 서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하느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있다, 하느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례 중 하느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전례력은 교회가 전례를 지내기 위해 마련한 교회 달력입니다. 전례력은 크게 3년을 주기로 가해, 나해, 다해(혹은 A, B, C)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 해의 전례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 공생활,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성탄 시기, 연중 시기, 사순과 부활 시기 등으로 구분합니다. 각 시기 중에는 대축일, 축일, 기념일 등이 있는데, 대축일 중 삼위

일체 하느님과 관련된 대축일(주님 탄생 예고, 성탄, 주님 공현, 부활, 주님 승천, 성령 강림, 삼위일체, 성체 성혈 등)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다음으로 성모님과 관련된 대축일, 그리고 그 밖의 대축일(에드와 바오로, 김대건과 동료 순교자, 모든 성인 등) 등으로 기념합니다. 축일 역시 하느님과 관련된 축일(주님 세례, 주님 봉헌 등)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이후 성모님, 사도들, 성인들 순으로 기념합니다. 대축일, 축일, 기념일은 미사 중 제대 위의 초 개수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축일엔 제대 좌우에 3개씩, 축일과 주일에는 2개씩, 기념일이나 평일에는 1개씩 겁니다. 부활 8일 축제는 대축일처럼 3개씩, 성탄 8일 축제 때는 2개씩 겁니다.

하느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하고 전례를 드려야 할까요? 기도를 바치는 궁극적 이유는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알고, 그분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 하느님과 하나 되고 일치하는 것이 기도와 전례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어렵기에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는 함께 하는 공적인 기도, 즉 전례를 통해 우리를 도와줍니다. 기도는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 할 때 더 힘이 세고 확실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면(루카 18,35-43 참조), '청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주실 것이고, 얻을 것이며, 열릴 것'(마태 7,7 참조)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정답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한다.'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한 야곱 (2)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글에서 야곱을 세속적으로 사기,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이 모두 사기로 치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실제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주시며 축복해 주셨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속담에 “살아있는 성인(聖人)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성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야곱 강에서 밤새 씨름을 한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창세 32,2-33).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이 씨름 자체가 야곱이 하느님과 끈질기게 겨루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기도입니다. 이런 인내의 기도를 바로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던 야곱은 20년 만에 큰 부자가 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형 에사오는 아직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마저 동생에게 빼앗긴 형 에사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이 먼저 야곱 강을 건너게 하는데 이 와중에도 자신이 더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녀는 가장 뒤에 보냅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나를 건네 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창세 32,24) 이제 남은 것은 야곱, 자신 뿐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창세 32,25)

당시에 씨름이란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동들이 자신의 힘을 키우고 과시하기 위해 했던 놀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붙잡고 씨름한 이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하자 야곱은 사력을 다해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이길 것 같지 않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 시켰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으며 그에게 축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야곱의 이름을 묻고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불렀는데 하느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밤새 하느님과 담판했고 마침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2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창세 28,13-15). 야곱은 에사오의 원한을 풀기 위해 기도하는 한편 동시에 선물을 준비하는 등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 행동했습니다.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찾아가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진심으로 절실하게 하느님께 청한다면 우리도 자비와 은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르골레시 | 사진출처: OPERA 366

음악칼럼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비통함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 주일 안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급기야 죽음 당하고, 찬란히 부활하십니다.

가톨릭 신앙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는 순간, 예수님 못지않은 고통과 슬픔을 겪은 또 한 사람의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들의 예견된 죽음,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묵묵히 바라봐야만 했던 인간 어머니로서 성모님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어머니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그 고통과 슬픔을 노래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 dolorosa - 슬픔에 잠긴 어머니, 서 계시네)〉라는 곡입니다. 이 음악은 주로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연주되지만, 내용이 이렇다 보니 당연하게 성주간, 성금요일에도 연주됩니다.


〈스타바트 마테르〉는 13세기 시인이자 프란치스코회 수사 야코포네 다 토디(Jacopone da Todi, 1230~1306, 이탈리아)가 쓴 찬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드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비통하게 울고 계신 성모님, 수난 칼에 깊이 찢린 성모 성심, 우리 죄를 위하여 모욕과 채찍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아드님을 보며 가슴을 에는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성모님, 이를 보고 누가 통곡하지 않으리요, 그 고통과 슬픔을 저희에게도 나눠 주소서, 주님의 상처를 제 마음속 깊이 새겨주소서, 함께 울게 해주소서, 성모님의 전구로 심판 날에 지옥 형벌에서 지켜주시고, 예수


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보호해 주소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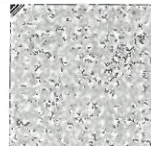
이 라틴어 찬미가에 조스캥 데프레, 비발디, 하이든, 슈베르트, 로시니, 베르디, 드보르자크, 폴랑크 등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망라한 수많은 작곡가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중 가장 사랑받는 작품은 단연 18세기 작곡가 페르골레시(Giovanni Battista Pergolesi, 1710-1736, 이탈리아)의 〈스타바트 마테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스물여섯 살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나폴리의 전도유망했던 오페라 작곡가 페르골레시가 생의 마지막 해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소프라노와 콘트라alto(여성의 가장 낮은 음역)가 번갈아 독창 또는 이중창으로 노래하는 이 곡은 모두 열두 개 악장(곡)으로, 약 40분~45분가량 연주되며, 연주자 구성에 따라 이중창 일부를 소규모의 여성 합창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성모님의 고통을 명확하면서도 감동적인 선율로 표현한 페르골레시의 〈스타바트 마테르〉를 들으면서 묵상하노라면, 성모님에 이어 우리 시대 비통에 빠진 어머니들도 함께 떠오릅니다. 세상의 갖가지 불의에 맞서다 죽어간 자녀, 누군가의 나태와 탐욕, 전쟁으로 희생된 자녀를 둔 어머니들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성모님의 전구로 그 영혼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프라노: 마그다 칼마르
콘트라alto: 율리아 하마리
헝가리 방송 합창단
리스트 페렌츠 실내 관현악단





회중석은 움직이는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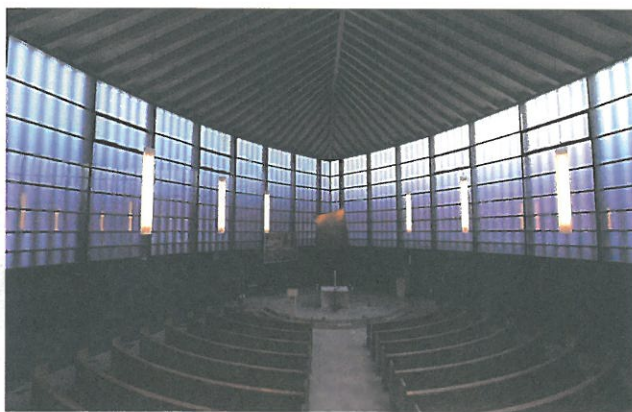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우리는 성당에서 긴 등받이 의자가 놓인 자리를 보통 신도석, 신자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나 신자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를 이르는 말이므로 엄밀하게는 ‘평신도석’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전례를 거행하려고 ‘모여 온’ 하느님 백성을 ‘회중(會衆, *populus congregatus*)’이라고 가르칩니다. 미사를 드리는 하느님 백성의 자리이니 이 자리를 ‘회중석’이라 불러야 합니다.

회중석은 성당 안에서 면적이 가장 큼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전례가 거행되는 동안, 하느님 백성은 제대를 둘러싸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몸을 모시며 회중석에 머물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으로 말하면 이 자리는 사제들만 들어가던 성소에 해당하는데,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단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회중석은 영어로 ‘네이브(nave)’라고 합니다. ‘배’라는 뜻입니다. 해군을 뜻하는 네이비(navy)와 어원이 같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성당에서는 신자들이 앉은 부분을 배라고 여겨 이를 라틴어로 ‘나비스(navis)’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도 그리스어 나우스(naus)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박공지붕을 안에서 올려다보면 뒤집힌 배처럼 생겼다고 신전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교회는 왜 회중석을 ‘배’라고 부르고, 회중은 ‘배 안’에 있다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교회를 격랑을 헤쳐 가는 작은 배로 표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소용돌이치는 물 위에 떠 있는 노아의 방주이고, 회중석에 앉은 사람들은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이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교부 히폴리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세상



독일 벤젠바흐의 성 베드로 성당

이다. 교회는 배와 같고 물결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가라앉지는 않는다. 사실 그 배에는 뛰어나신 선장 그리스도가 계시다.”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는 화해를 이룬 세상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뜻을 활짝 펴고 성령의 바람을 받아 이 세상을 잘 항해하는’ 배다. 교부들이 즐겨 쓰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는 홍수에서 유일하게 구해주는 노아의 방주에 비유된다.”(845항) 그래서 성당은 배가 되고 이로써 회중석을 ‘네이브’라 불렀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선강 한가운데 있는 시테섬에 서 있습니다. 독일 벤젠바흐(Wenzenbach)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2003년)은 천장을 나무배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회중석은 깊은 바닷물을 항해하는 ‘배’라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아래로 내려갈수록 짙어지는 창과 짙은 푸른빛의 벽으로 지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회중석’은 ‘배’라는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중석에 머물 때마다 성당이라는 배를 함께 타고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노 저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제수품 70주년·60주년·50주년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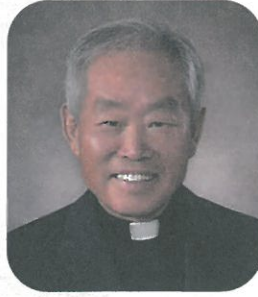
사제수품 70·60주년



백민관
테오도로 신부

1952년 사제수품

깨어 기도하여라.
(루카 21,36)



김수창
야고보 신부

1962년 사제수품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1고린 9,23)



이문주
프란치스코 신부

1962년 사제수품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
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태 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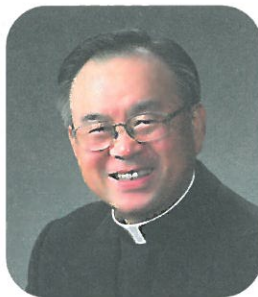
사제수품 50주년



박신언
라파엘 몬시뇰

1972년 사제수품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태 26,39)



김인성
요한비안네 신부

1972년 사제수품

secundum Verbum tuum
당신 말씀대로
(루카 1,38)



정광웅
요셉 신부

1972년 사제수품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태 26,39)

오늘(4월 10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사순 시기 이웃돕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면서 행한 희생, 특별히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단식한 것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2차 헌금으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축성 미사 및 사제수품 70주년 · 60주년 · 50주년 축하식

교구 사제단의 단일성은 물론 주교와 사제들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주간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가 4월 14일(목)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있습니다. 성유 축성 미사 후 명동대성당에서 사제수품 70주년·60주년·50주년 축하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4월 15일)에는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

양경모(멕시코), 김경진(대만) 신부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해외 선교 사제로 파견됩니다. 이에 정순택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를 봉헌하오니 함께 하셔서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 곳: 5월 4일(수) 오후 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 문의: 02)727-2424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교구정일령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4월25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형준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보양 갖기 미사)

때, 곳: 1313차 미사 4월1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숙천 본당, 순천 본당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문의: 02)727-2420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4월23일 10시-묵주기도, 10시 30분-유가족미사
곳: 명동대성당 옆 영성센터 경당(상설교회소 건물)
문의: 02)318-3079 한마음혼몰자살예방센터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2022 봄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7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도시공학, 성경, 음악), 가슴쿵다 교회사, 망고실과 한지로 표현하는 성경 속 이야기(원데이 미술)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조수정, 조은호 2인전: 1전시실
하귀분 개인전: 2전시실
전시일정: 4월6일(수)~11일(월)
철조망, 평화가 되다 展: 3전시실
전시일정: 4월6일(수)~25일(월)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사순특강 수강생 모집

강의명: 교회미술 속 사순과 부활의 상징들
강사: 장궁선 신부(이론연구소 소장)
때: 4월13일(수) 19시~20시30분
곳: 줌(Zoom)어플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
회비 없음(선착순 50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네이버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문의: 02)751-4104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2022년 가톨릭스카우트 체험캠핑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가톨릭스카우트에서 청소년을 위한 스카우트 체험캠핑을 개설합니다
대상: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때: 6월4일(토)~5일(일) 1박2일 캠핑
곳: 경기도 양주시 삼승리야영장
신청방법: <https://seoulkscouts.modoo.at> 참조
신청기간: 4월12일(화)~5월11일(수)까지
문의(신청): 02)762-9857 / (화~토) 8시~17시

생명위원회

1) 회의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4월12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화)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orlife.or.kr>) 참조
2)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10기
대상: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분들(예비/신혼부부, 개인)
때: 4월21일~6월30일 매주(목) 20시(총 10주 강의 / 5월 5일 휴강) / 모집인원: 40명(선착순 마감)
강의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교재 포함, 교구장님 명의 수료증 발급) / 신청 및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역주 사학징의 완간, 한국 순교자연구 총서 구입 안내

순교자현양위원회는 1996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한국 순교자연구 총서' 간행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21년만에 '역주 사학징의2'가 출간되면서 13번째 연구 총서가 간행되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순교자현양위원회를 통해 '한국 순교자연구 총서'를 구입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상주) / 1522-9415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 문의: 02)940-1503

분야: 치과 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 이메일(hfh1990@daum.net) 접수

라파엘클리닉 직원 모집

업무: 진료소 운영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97raphael@hanmail.net) 접수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 채용 / 문의: 02)763-7595

혹석동성당 방호원 모집(계약직)

분야: 방호원 계약직 1명 / 업무: 시설 관리 및 제반 업무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민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 4월24일(일)까지 우편(우 06910,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13길 3) 접수
이메일(jhunhl@seoul.catholic.kr) 문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모자녀 애덕의 도미니코 수녀회	4월24일(일) 14시	수녀원(부천)	010-5166-1275
예수고난회	4월10일(일) 11시~16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월16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5월1일(목)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극장 신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7510-4820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 문의: 02)990-1004
 때: 4월22일~24일, 5월27일~29일(2박3일)
 곳: 명상의 집(우이동) / 개인 피정(수시) 별도 문의

한티가는길 2박3일 도보순례(한티피정의집)
 때: 4월29일(금) 9시~5월1일(일) 14시
 코스: 45km-가실성당, 신나무골성지, 한티순교성지
 숙박: 한티피정의집(2박7식) / 문의: 054)975-5151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20일~23일·6월17일~20일·7월15일~18일
 ·7월29일~8월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반장
 때: 4월19일~21일, 4월24일~26일, 5월6일~8일, 5월10일~12일, 5월16일~18일, 5월22일~24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4월18일~20일, 4월29일~5월1일
성지순례	4월23일~26일, 5월5일~8일, 5월12일~15일, 5월28일~31일, 6월4일~7일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말씀 피정	4월28일(목)~5월1일(일)	곳: 도미니코 피정의집(주최, 황성)
성경 완독	5월13일(금)~21일(토)	
효소 단식	5월26일(목)~29일(일)	

교육

반포4동성당 김대건 안드레아 성서 아카데미(코헬렛)
 때: 5월12일~7월14일 매주(목) 10시50분~12시
 곳: 반포4동성당 대성전 / 회비: 4만원(교재비 포함)
 강사: 박요한 영식 신부(반포4동성당 주임)
 주제: 코헬렛(전도서) / 대상: 신자 및 성경에 관심 있는 분(선착순-방역 지침상 허용인원)
 4월30일까지 접수 / 강의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도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3482-2255 반포4동성당 사무실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자유를 향한 내적여정(전교가르멜수녀회영성의집)
 정화와 합일, 덕행과 내적성장, 식별과 하느님 현존
 때: 매주(목) 10시(비대면·각5회) / 문의: 010-4495-7764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6기·청년반 13기 개강
 때: 4월26일(화) 14시·4월27일(수) 19시·4월26일(화) 19시-청년반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젊은이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임
 구원역사 속의 성모님을 배우고 닮기
 때: 4월24일(일) 10시~16시(월1회·10회)
 곳: 가톨릭회관 311호 / 회비: 15만원(중식 제공)
 문의: 010-9620-4820 서울마리아학교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교육
 때, 곳: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 오후반 14시·금요일 저녁반 20시, 삼동역 분회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과정 추가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접수: 4월30일(토)까지 우편접수 가능

'오르프'와 함께하는 섬, 움직임(리듬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직장인(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4월19일~5월10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벨칸토 발성 아카데미
 대상: 성가와 가곡을 부르고 싶은 가톨릭 신자(성가대원·성가대 희망자, 비신자 / 내용: 발성이론(원리·실습·호흡법), 가창실기(성가·가곡)
 때: 5월3일~6월28일 매주(화) 오전반 10시~12시·저녁반 19시~21시(9회) / 인원: 오전반·저녁반 각 25명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7층 체칠리아홀
 회비: 18만원(OT 이후 환불 불가) /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강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접수): 02)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모집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3~초6 첫영성체 받은(2022년 예정인) 가톨릭 신자
 오디션: 4월23일(토) 15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 문의: 010-2650-8014
 4월21일(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예수회센터 카페봉사자 모집 및 일상영신수련
 문의(접수): 02)3276-7733 예수회센터 행정실 / (토·일)휴무
 1) 예수회센터 이나시오 카페 신입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소정의 바리스타 교육 후 봉사시간 조정 및 선정합니다
 2)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19번에 의한 영신수련)
 영적지도: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의 사제와 수도자들
 때: 8월31일~12월21일 매주(수) 오전 10시~12시(17주 과정)

미사

살레시오와 꿈 후원회 월례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4월11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층(205-3호)

들꽃마을 서울 영성강의 및 미사 취소 안내
 때: 4월12일(화) / 문의: 054)955-4133, 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찻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사별가족모임 '사랑마루'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 4월17일(일)까지 접수
 때: 5월5일~6월23일 매주(목) 14시~17시(8회)
 곳: 용산성당 교육관(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문의: 010-8891-4572 용산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우울·분노·성격 등의 어려움, 부부 및 가족상담-부부갈등·의사소통의 어려움·자녀문제로 인한 갈등, 스트레스-직장 내 어려움·대인관계 / 문의: 02)726-070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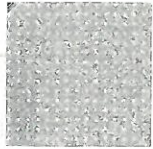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자아 및 관계 회복	5월17일~6월28일 매주(화) 10시~13시(7주)
-----------------------	----------------------------------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등)

유관단체 알림

다숨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루카복음서 해설 2

최안나 지음
성서와함께 | 400쪽 | 2만원
문의: 02)822-0125

예루살렘 여정, 수난과 죽음, 부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루카9,51부터 24,53까지 이르는 본문의 해설을 통해, 의심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전했던 가르침 등을 살펴봄여, 승천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여정에 함께 한다.



신간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한재호 지음
성서와함께 | 268쪽 | 1만5천원
문의: 02)82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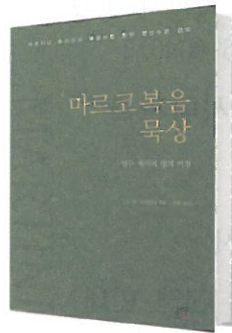
이 책은 성경 읽기와 묵상의 방법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각 방법에 따라 성경 본문을 읽는 실제 예를 많이 들었다. 저자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써 '믿음', '희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해석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소개하여 여러 차원의 영성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마르코복음서

가톨릭성서모임 지음
성서와함께 | 76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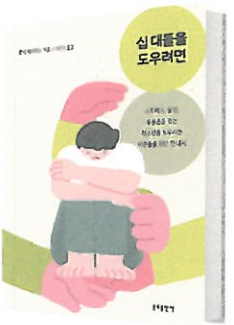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수록했고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간
마르코복음 묵상

C.M.마르티니 지음
바오로딸 | 168쪽 | 1만원
문의: 02)944-0944

마르코복음을 고리교육에 중점을 둔 '에비신자의 복음서'라는 관점에서, 특별히 열두 제자의 영적 여정에 초점을 맞춘 마르티니 추기경의 영신수련강의이다. 열두 제자의 자리에서, 열두 제자와 함께 걸으며, 자기내면의 여정을 성찰하도록 안내하며 올바른 신앙 정신을 일깨우는 길잡이다.



신간
십대들을 도우려면

로이 페터피츠 지음
본도출판사 | 232쪽 | 1만9천원
문의: 02)2266-3605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도우려는 어른들을 위한 안내서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도 한창 예민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찢찢맨다. 이 책은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부모, 사목자, 청소년 지도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 올바르게 도움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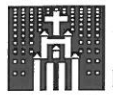


연극
앙상블

공연일시: 4월 7일~5월 8일 (월, 목, 금) 20시,
(수, 토, 주일) 15시(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전석 4만원 / 문의: 02)334-5915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1부로 4명 30% 할인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지적 장애를 겪고 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갈등과 애증의 앙상을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낸 연극이다. 장애를 바라보는 가족과 사회의 시선을 통해 희생과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임을 되새겨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제2224(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세례식 : 4월 17일(주일) 11시 미사**
 예절연습 : 4월 16일(토) 오후 4시 / 대성전
 ※ 예절연습에 대부분님과 함께 참석바랍니다.

◎ **사순시기 맞이하여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 전하기**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이 카드를 보냅니다.
 대상 : * 코로나로 한동안 성당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
 * 기도가 필요하신 어르신
 신청기간 : 3월 12일~4월 10일(사순 5주간)
 접수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문의 : 초등부교사 (010-9035-0640)

◎ **4월 12일(화) 저녁 7시미사는 대성전에서 드립니다.**

◎ **십자가의 길**
 일시 : 4월 15일(금) 오후 3시

◎ **성삼일·주님부활대축일 전례 안내**

4월 14일(목) 주님만찬성목요일	오후 8시 - 주님만찬저녁미사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미사 후 성체조배-소성전)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을 확인바랍니다.
4월 15일(금) 주님수난성금요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단식, 금육) 오후 8시 - 주님수난예식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4월 16일(토) 파스카성야	오후 8시 - 파스카성야미사 (준비물 : 부활절예물, 초) ※ 오후 3시 어린이미사 없음
4월 17일(주일) 주님부활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주일학교), 오후 6시 ※ 오전 7시 미사 없음

※ **성삼일(4월 14일~16일)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4월 19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사순절이웃돕기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4. 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79	712 (34.2%)	652 (31.4%)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28,297,100원

◎ **감사헌금 (3월 28일~4월 3일)**

송서운일십만원 김은순오만원
 익 명삼십만원 김성태오만원
 진영문일십만원 진현주오만원
 진현수오만원 함영업일십만원
 김재균오만원 익 명일백만원
 고 김성일 베드로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5주일)**

교무금12,931,000원
 주일헌금4,637,65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1,934,200원